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7호

2021년 11월

전문가 기고

ESG워싱과 지속가능투자 발전 방향

주요 이슈

COP26 개최 의의 및 주요 내용
스튜어드십과 주주 행동주의

ESG 동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GRI 표준 개정

주요 통계



대한상공회의소

ESG워싱과 지속가능투자 발전 방향



한국ESG연구소 ESG센터장
이선경

독일 DWS 자산운용과 미국 블랙록의 전 지속가능책임자가 내부 폭로를 통해 ESG투자가 과장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상품의 ESG워싱에 대한 논란이 화두이다. 각국의 그린딜 및 탄소중립 대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바, 이러한 논란 속 각종 제도 준비가 이루어지며 지속가능투자(혹은 책임투자) 시장은 점차 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한다.

ESG 시장규모를 논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주요 기관투자자 연합인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의 2020년 시장 자료는 흥미로운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2020년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은 2018년 대비 15% 성장했으나, ESG 투자의 효시라 볼 수 있는 유럽의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불과 2년전 주요 5대 지역 전체 시장의 46%를 차지했던 유럽은 2020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의 빠른 성장과 대비되며 시장 내 비중이 34%로 하락하였다. 그렇다면, 유럽의 시장이 이제 성장기를 지나 감소기로 진입한 것인가? 답은 되려 반대이다. 유럽은 기정비된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타 국가대비 한발짝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은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2019년 그린딜 전략을 발표했고, '그린'의 기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EU Taxonomy를 정비했다. 또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정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방식을 표준화할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통해 지속가능투자 전략과 투자규모 등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2021년 3월 SFDR의 1단계가 시행되며 지속가능에 대한 전략과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는 방법, 지속가능투자 규모를 공시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ESG 전략과 상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펀드를 지속가능투자에서 지속가능투자가 아닌 것으로 재분류하며 지속가능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SFDR 1단계에서는 지속가능투자를 규정하는 세부적인 기술표준이 정비되지 않아 자율적인 점검에 따른 재분류였으나, 올해 12월 기술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이 확정되어 내년 7월 이후 2단계에서 적용되면 유럽의 지속가능투자 규모는 더욱 감소한 수치로 집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타 국가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각국의 금융당국들은 ESG 상품의 기준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ESG 공시제도 등이 정비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투자 시장을 논할 때 양적인 수치보다는 질적인 성장과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연초 이후 공적 연기금의 ESG 사모 펀드 확대와 ESG를 주제로 내건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이 가파르다. 국민연금은 최근 발표된 연금운용 보고서에서 ESG를 100%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021년 10월초까지 ESG 펀드에 약 3조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ESG 반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공개된 바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 ESG 펀드 적용과 ESG워싱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정보 공시 확대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ESG 투자 판단 기준 수립 및 공시 의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글로벌 대비 시차는 있을 수 있으나 국내 역시 금융기관의 ESG에 대한 기준 수립 및 공시 제도가 점차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이 ESG에 대한 투자 방식과 기준, 그 규모를 공시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ESG 정보 요청 및 Engagement 활동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ESG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위 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ESG 요소가 무엇인지를 기업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전사적인 차원의 ESG 전략과 목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COP26 개최 의의 및 주요 내용



SGI 배두현 선임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 개최되었다.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재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 등을 목표로 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① 주요 일정 및 목표(Goals)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로, 전세계 197개국이 매년 모여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COP26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재정, 에너지, 자연, 기후변화 적응, 기술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세션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COP가 달성하고자 한 주요 목표는 다음 4가지였다. 첫번째 목표, 'Mitigation(완화)'은 글로벌 탄소중립 협약에 맞춰 기온상승 제한에 기여하는 것이다. 5년전 파리협정에서 이끌어낸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참여국들의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번째 목표, 'Adaptation(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

류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뭄·홍수와 같은 기후변화로 주거지를 잃어버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번째 목표, 'Finance(재정)'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부유한 국가들의 더 많은 재정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원 투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7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네번째 목표, 'Collaboration(협력)'은 파리협정에서 도출된 합의를 구체화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일정 및 논의 주제

10. 31. ~ 11. 2.	11. 3.	11. 4.	11. 5.	11. 6.	11. 8.	11. 9.	11. 10.	11. 11.	11. 12.
개회, 정상 회담 (문재인 대통령 기조 연설)	재정	에너지	청년 세대, 기후정의	자연	기후변화 적응, 회복력	성평등, 기술 혁신	수송	도시 환경	폐회

4가지 목표(Goals)

Mitigation(완화)	- COP26에서 글로벌 국가들의 탄소중립 이행 재확인 - 파리협정에서 동의한 탄소중립 실현 및 1.5도 이내로 기온상승 제한
Adaptation(적응)	-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위한 더 많은 예산과 방안 마련 및 주거지 보호와 보존에 집중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모든 국가가 협력
Finance(재정)	- 개도국에 연간 1,000억 달러(100조 원) 이상의 자원 투자 확보 - 공공·민간재원으로 기후변화 인프라 및 기술과 혁신에 투자 유치
Collaboration(협력)	-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모든 사회 각계의 기후변화 문제 대응 위한 노력 촉구 - 탄소중립 기여도를 체계화 할 수 있는 통용 시스템 도입해 투명성 문제 해결

② 한국,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적 공식 선언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COP26 첫날 정상회담 (World Leaders Summit) 세션의 주제는 '행동과 연대'였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설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3가지 약속과 1가지 제안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했다.

첫번째 약속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 목표보다 14%포인트 가까이 상향한 것으로 온실가스를 짧은 기간에 더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70배 높은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메탄 서약'에 가입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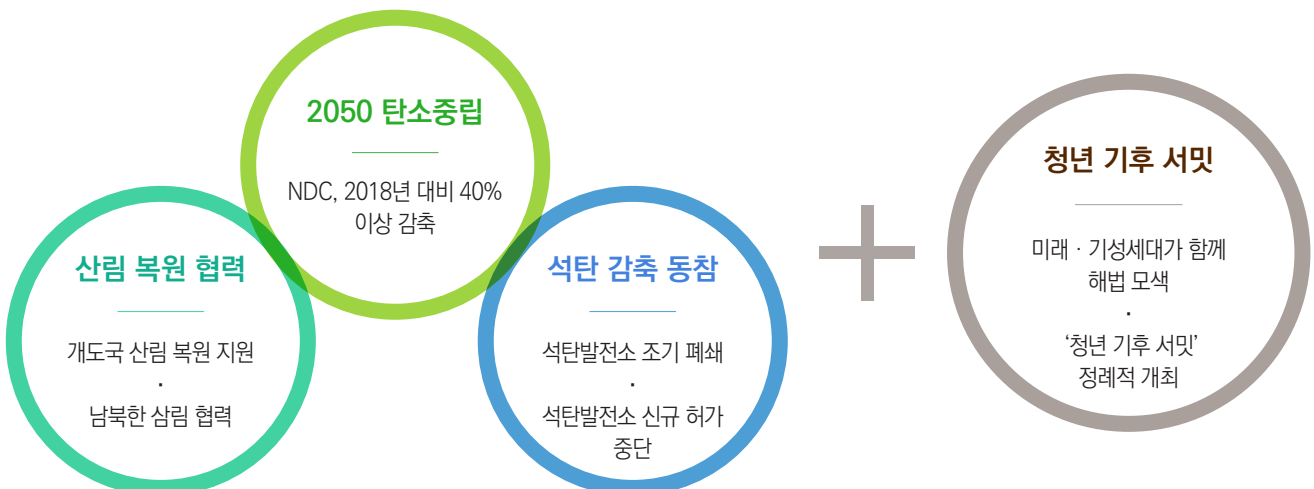
두번째 약속은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산림 조성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이다. 개도국들의 산림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남북한 산림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세번째 약속은 글로벌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두 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한국은 석탄발전소의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등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로 1가지를 제안했는데, 바로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이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각국 정상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COP26은 참여국들이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달성 방법이나 개도국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어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COP26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한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3가지 약속과 1가지 제안



스튜어드십과 주주 행동주의



연정인 연구위원

ESG 책임 투자 활성화로 자본시장의 행동 원칙이 변하고 있다. 적극적 주주 참여 방식으로 투자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행동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① ESG 이슈와 주주 행동주의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란 주주 또는 수탁자가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및 지배구조에 적극 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투자자가 우려하는 이슈에 대한 주주 결의안 발송, 의결권 행사 등 주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해 발동되는 주주행동주의는 ‘단기적 이익 추구는 지양하고 장기적 기업가치를 증대할 것’을 표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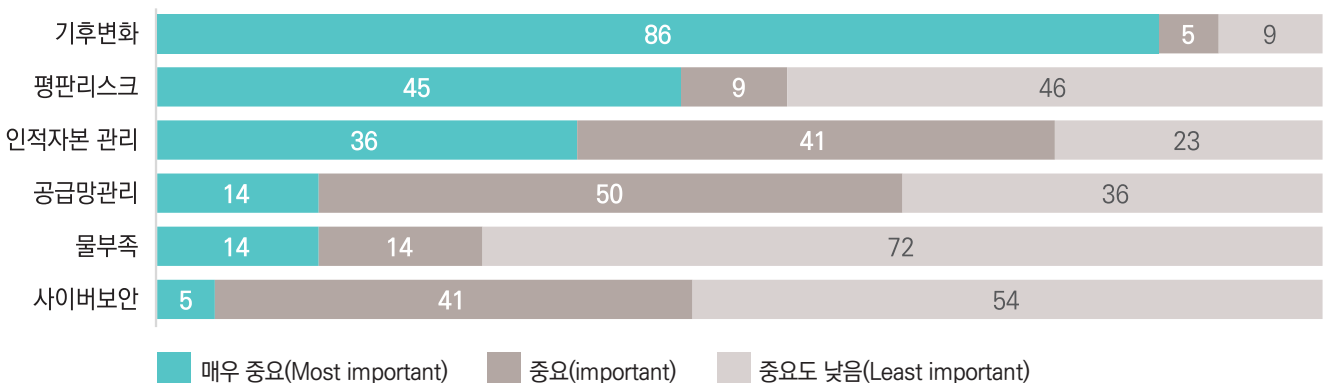
주주행동주의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는 없다. 주목할 점은 최근 기후변화 이슈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주요 리스크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헤지펀드식 전략과는 차별되는 주주활동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적극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행동주의(Stewardship activism)’가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스튜어드십은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지난해 12월 ‘Our 2021 Stewardship Expectations’ 보고서를 발간하며 스튜어드십 행동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다. 블랙록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의 이사진 55명에 대해 재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조속한 기후 행동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에 연례서한을 발송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공개’와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및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기준의 보고서 공시’를 요구했다.

기후변화를 중대하고 명백한 투자리스크로 인식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이 변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던 시대는 가고, ESG 등 비재무적 성과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행동주의가 투자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투자결정 요인 설문

단위 : %



※ 자료 : 하버드 로스쿨 기업지배구조포럼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2020' by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②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에서의 스튜어드십 행동주의는 2016년 12월에 도입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KSC, Korea Stewardship Code)'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제정된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 원칙'으로,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가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과 관련 지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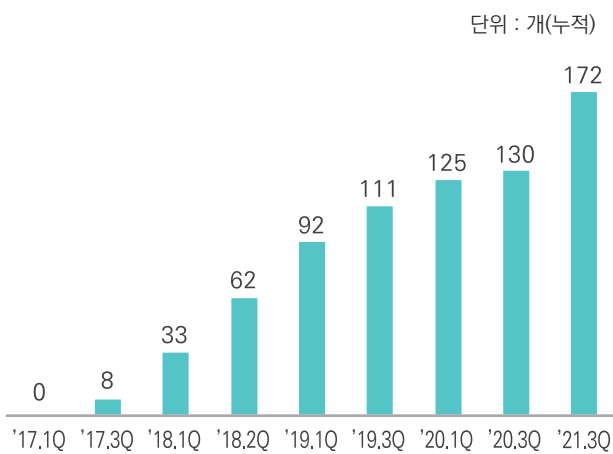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기관 차원의 주주 활동 정책 마련, 투자기업의 가치평가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경영과 같은 '비재무적 활동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연성규범(Comply or Explain)을 갖춘 셈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 성과 점검 및 ESG 관련 수탁 책임 강화를 위한 개정 검토 계획'을 발표하는 등 KSC의 올바른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 20여개 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운용 자산규모가 137조원에 달하는 우정사업 본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뒤를 이어 KSC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국내 4대 연금이 모두 '스튜어드십 행동주의'라는 글로벌 흐름에 보폭을 맞추어 가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KSC 참여기관수는 172개이며,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50개로 집계되는 등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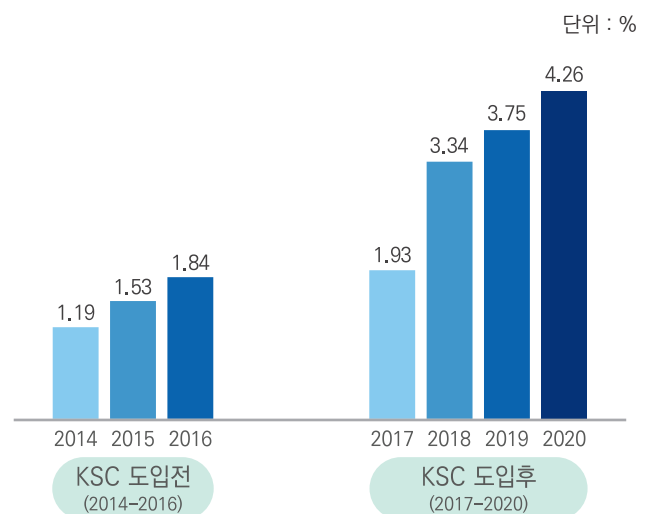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독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ESG 경영 및 주주 참여에 대한 대응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수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¹⁾



※ 참조 : 1. 의결권이 행사된 전체 안건 대비 반대 의결권 행사 건 수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김예나 연구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고,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공식 선언했다. 온실가스 감축 시계가 빨라진 만큼 기업들의 대비가 절실하다.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정부는 지난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확정했다. 11월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상향안을 공식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약속했다.

NDC 상향안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의결한 것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등 부문별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환 부문에서 44.4%, 수송 부문에서 37.8%, 건물 부문에서 32.8%, 농축수산 부문에서 27.1%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14.5%를 줄여야 한다. 산업별 목표 감축률을 보면 △ 철강 2.3% △ 석유화학 20.2% △ 시멘트 12% △ 기타 28.1% 이다. 산업 부문에서의 주요 감축 방안에는 혁신기술 조기 개발 및 도입, 친환경 원료·연료로의 전환, 에너지 저감 설비 도입 등이 있다.

②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으로 배출량이 많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추가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철강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후방 연관효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개별기업 입장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이 중요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면 감축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속도조절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필요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	감축 방안	2018년 (배출량; 백만톤)	2030년 (배출량; 백만톤)	목표 감축률 ('18 대비)
철강	· 신·증설 설비를 전기로 대체 · 미래기술 조기 상용화	101.2	98.9	2.3%
석유화학	· 친환경 원료로 전환(납사→바이오 납사) ·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46.9	37.4	20.2%
시멘트	· 예열기 및 냉각기 에너지 효율 개선 · 친환경 연료로 전환(유연탄→폐플라스틱, LNG→전기)	34.1	30.0	12%
기타	·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시설 친환경연료 이용 확대	78.3	56.3	28.1%

※ 자료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관계부처 합동)

GRI 표준 개정



김민성 연구원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 표준을 제시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지난 10월 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권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부문별 표준을 도입한 개정안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두가지를 들 수 있다. 기존 GRI 표준(Standards)이 보편 표준(Universal Standards)으로 개정된 것과 부문별 표준(Sector Standards)이 새로 도입된 것이다. 주제별 표준(Topic Standards)은 보편 표준과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개정되었다.

기업들은 보편 표준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업이나 이슈에 따라 부문별 표준 및 주제별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

보편 표준 개정안은 인권을 더욱 강조하고, 실사 의무(Due Diligence)를 강화했다. 특히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과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 등을 반영해 기업의 인권 관련 이슈를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부문별 표준은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GRI는 석유 및 가스 부문 표준을 먼저 공개했는데 기업이 환경·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GRI는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이어 40여개 산업에 대해서도 표준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GRI는 이번 개정안이 장기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있어 인권을 강조하고 실사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GRI 표준(GRI Standards)

보편 표준(Universal Standards)



Requirements and principles for using the GRI Standards



Disclosures about the reporting organization



Disclosures and guidance about the organization's material topics

Apply all three Universal Standards to your reporting

부문별 표준(Sector Standards)



GRI 11



GRI 12



GRI 13



GRI 14



GRI 15



GRI 16



GRI 17



GRI 18



...

Use the Sector Standards that apply to your sectors

주제별 표준(Topic Standards)



GRI 201



GRI 403



GRI 305



GRI 415



GRI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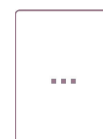
GRI 202



GRI 304



GRI 205



...

Select Topic Standards to report specific information on your material topics

※ 자료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ESG 통계 지표

2021년 10월말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9	2020	'21.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녹색채권	21	31	85	94	105	122	122	131	135
사회적채권	178	471	572	599	632	663	689	710	747
지속가능채권	8	44	93	113	124	144	162	178	181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잔액

(단위 : 천억 원)

	2019	2020	'21.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녹색채권	21	30	90	103	113	129	128	139	141
사회적채권	246	736	918	979	1,018	1,079	1,125	1,166	1,214
지속가능채권	21	54	99	105	120	129	141	153	154

2. ESG 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1년도 최종 등급 분포

(단위 : 개)

부문	S	A+	A	B+	B	C	D	총 기업 수
통합	-	14	171	136	211	221	12	765
환경	-	11	116	114	160	164	200	
사회	-	136	111	104	147	233	34	
지배구조	-	8	154	313	196	39	8	718

3. 기타 통계

대륙별 UN Global Compact* 가입 기관/단체 수

(단위 : 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2,088	3,043	8,702	한국 제외	한국	299	1,008
			3,433	273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부문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UN 산하기구.

2021년 ESG 뉴스레터 주요 이슈 목록

5월

|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6월

| 주요국 기후변화 관련 규제·정책 동향
|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계획

7월

|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8월

|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 한국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9월

| ESG 경영전략
| Supply chain과 ESG

10월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11월

| COP26 개최 의의 및 주요 내용
|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 행동주의

12월

|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COP26 개최 의의 및 주요 내용

배두현 선임

T. (02)6050-3142 | E. doohy@korcham.net

스튜어드십과 주주 행동주의

연정인 연구위원

T. (02)6050-3147 | E. yeonjungin11@korcham.net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im@korcham.net

GRI 표준 개정

김민성 연구원

T. (02)6050-3139 | E. mskim62@korcham.net

ESG 통계 지표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